

[시티 & 피처]

■ 亞문화전당 부지내 건물 철거 「폭파공법」의 모든 것

폭약 100kg 설치·분진 방지 물 80t 부어

6층 건물 '쾅!' 3초만에 사라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 청계천 복원 공사에서도 인근 아파트 철거에 나섰던 '우창건설'과 '두승건설'이 216개 철거 대상 건물 가운데 58%인 126동을 철거했다.

건물 철거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폭파 해체. 지난 9월 16일 '쾅~'하는 굉음과 함께 3초 만에 모습을 감춘 광주시 동구 대의동 '연합고시학원'은 '9·11테러' 당시 세계 무역센터(WTC)를 떠올리게 했지만 전혀 파편이 주변으로 날아들지 않았다.

벽·계단 등 미리 부숴놔

◇ 폭약 설치 어디에=문화전당 부지 철거대상 건물 216곳 중 5층 이상은 40곳에 달한다. 하지만 용역 결과 단 10곳 만이 폭파해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창건설' 등은 안전성을 고려해 연합고시학원과 남양빌딩(광주시 동구 광산동)만 폭파해체 하기로 했다.

폭파해체 공사는 건물의 설계도를 꼼꼼히 분석해 폭약을 설치해야 할 층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모든 층에 폭약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 낭비일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1천 413㎡) 규모인 연합고시학원의 경우 1·2·4층에만 폭약이 설치됐다.

폭파 층이 결정되면 '사전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건물이 폭발에 쉽게 부너질 수 있도록 벽과 계단, 철근 등 일부를 미리 부숴놓는 작업이다. 하지만 기둥은 남겨둔다. 기둥에는 폭약을 설치할 지름 25mm, 기둥 두께의 3분의 2 깊이의 구멍을 뚫는다. 보통 기둥 1개 당 2~3개는 뚫어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철거건물의 폭파해체를 맡은 '우창건설' 직원들이 지난 9월 철거한 연합고시학원 부지에서 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뒤에 보이는 남양빌딩은 다음달 철거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폭파할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막는 '방호벽'(防護壁)을 설치하는데, 폭파 시킬 기둥을 아연도금강판으로 둘러싼 뒤 그 위에 특수재질의 방폭(防爆)시트를 씌워 철선으로 감는 작업이다.

폭파공법을 이용한 건물철거는 인력과 소요시간을 크게 절감시킨다. 연합고시학원의 경우 모든 과정이 2주 만에 진행됐다.

남양빌딩 폭약 250kg 들듯

'우창건설' 박종선 상무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폭파해체공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조선대 공대 건물(6층·연면적 8천 200㎡)이 처음으로 폭파해체공법으로 철거됐으며, '연합고시학원'은 두 번째다. 남양빌딩은 다음달 초 철거될 예정이며, 250kg의 폭약이 들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콜센터 전용건물 상무지구에 짓는다

570억 투입 지상 18층 규모...오는 2010년 준공

5천석 규모의 콜센터를 유치한 광주시가 콜센터 집적화를 위해 상무지구에 초대형 콜센터 전용 건물을 건립한다.

광주시는 14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시유지 1천평에 570억원을 들여, 지상 18층 규모의 콜센터 전용건물을 짓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도시공사가 건축과 임대를 맡고, 시는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면적 1만2천여평에 휴게실과 교육실, 타이실 등 맞춤형 최신형 콜센터 전용건물로 건립되며 수용 규모는 1천800석이다.

콜센터 전용건물은 전국 최초이며 내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0년 준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만석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10월 현재 광주에서 운영중인 콜센터는 25개사 5천2석 규모다.

시는 전국적으로 30여만석에 이르는 콜센터가 운영중이며, 이중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콜센터 관련 기업들이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지방이전을 선호하고 있어 콜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동집약적인 콜센터 유치와 전용건물 건립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유치 가능성은 100% 장담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부서, 37년만에 이사

27일부터 상무지구 신청사 입주

광주 서부경찰서가 오는 25일 서구 치평동 1161-4번지로 이전, 27일부터 신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지난 1969년 광주경찰서(현 광주 동부경찰)에서 분리돼 서구 능성동 현 위치에 자리잡은지 37년만이다.

서부경찰서는 광주·전남 26개 경찰서 중 유일하게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가장 오래됐다.

신청사는 연면적 4천여평에 건축면적 2천400여평 규모로 본관은 지하 1층·지상 5층, 별관인 민원동은 지상 3층으로 건립됐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작된 공사는 15일 오후에야 마무리 될 예정으로 만 1년이 소요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 서부경찰서 직원들이 14일 서구 치평동 신청사로의 이사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삿짐의 분량은 1t트럭 170여대로 이사비용만 2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연 이어 결혼식까지 '문화 지하철'

금남로 4가역서 19일 웨딩마차

복지·문화시설로 한 끝을 하고 있는 광주 지하철역에서 결혼식이 열린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4일 공사 신호팀에 근무하는 김선일(29)씨가 오는 19일 금남로 4가역 대합실에서 신부 이유경(29,여)씨와 지하철 역 결혼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하철역 결혼식은 김씨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광주 지하철역은 도청역의 5·18 흥보관, 금남로 5가역의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교육·홍보관과 매일 저녁 번갈아 열리는 무료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광주공원 인근 금남로 4가역에 '동글이 방울이 무료 이·미용소'도 열어 자원봉사자들이 첫째·셋째주 월요일 3시간씩 무료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또 공사 직원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최첨단 교통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지하철 견학코스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는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연·경화 등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채워줬던 지하철역은 또 하나의 이색 이벤트 무대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안·내

신 고

교통안내	● 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부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청 국세청 1588-0060	● 사이버테러 (02)118
	●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제청 1588-2505	● 기장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상 담	● 행정민원상담 광주전남법무청 1588-9090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당직변호사(15일) 이경영 226-2511	● 광주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법무사회 법률상담(15일) 정연길 239-1809	● 광주노인대학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35년 전통의 복교당 만화방이 연구 개발한

장수·특수 모자와 악동

제작자 김선호로 표기되는 그림책 저작권은 광주 북구 북구문화재단이 갖고 있다. 제작장소는 전시관이며 전시회는 10월 20일까지이다.

당첨식품 111-06238-3303-362-4800 02-27-11

임대사업자 및 적원 모집

2007년 1월 1일 입주 예정이며 2007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도곡온천 새암호텔

